
2011 해외 ICT 표준화 동향 정보

(2011년 3월)

< 목 차 >

1. ITU, 온라인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 (2011. 3. 4)
2. ATIS, 비음성 재난통신 표준화 실시 (2011. 3. 10)
3. 도코모, 환경센서네트워크- 2011년 4천개국으로 확대 (2011. 3. 10)
4. ANSI, 표준개발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시장 영향에 관한 워크숍 개최 예정 (2011. 3. 11)
5. 인터넷 주소의 포화로 차세대 인터넷 주소를 위한 표준과 프로토콜을 준비
: World IPv6 Day 행사 개최 (2011.6.8) (2011. 3. 11)
6. 기술, 표준 그리고 오늘날의 SDO들 (인터뷰 기사) (2011. 3. 14)
7. 가트너, 지진 발생시 IT 대응 지침 발표 (2011. 3. 18)
8. IEC,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분야의 표준 투표 기간 단축 (2011. 3. 18)
9. 일본 총무성, 정보통신분야 표준화정책 검토위원회 회의 개최 (2011. 3. 25)
10. 홍콩 정부, 클라우드 인프라 도입 추진 (2011. 3. 25)
11. 중국, IOT(Internet of Things) 표준 개발 경주에 동참 (2011. 3. 30)

◎ 토막뉴스

◎ 해외 ICT 표준화 동향 정보 목록

1. ITU, 온라인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

- 보도날짜 : 2011. 3. 4.
- 기 관 :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사 이 트 : <http://www.itu.int/ITU-T/newslog/Standards+Need+To+Protect+Children+Online.aspx>

온라인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및 표준이 요구되고 있다. ITU-T TSAG은 ITU-T 보안관련 표준화 작업반인 SG17에 다음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1. 온라인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및 관련 권고 개발
2. 온라인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어떤 옵션과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 서로 다른 사업자 간 공유하는 정보와 위험요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예, 감시·경고·사고관리 등) 역량 개발에 관심
3. ITU 회원국이 민간부문 및 산업계와 효과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규약 즉 행동강령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산업계(방송, 인터넷, 이동통신 등)를 포괄하는 대상 확인
4. 어린이의 ICT 이용에 따른 위험은 줄이고 이점은 확대하기 위하여 특별한 성능을 개발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민간부문 및 산업계 그리고 정부 간에 협력 약정을 수립

ITU COP (Child Online Protection) 과제는 어디에서나 어린이에게 안전한 온라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글로벌 공동체들이 참여하여 2008년 11월 시작되었다.

SG17은 보안, 사이버보안 및 개인식별 관리가 여러 문제 중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COP의 기술적 쟁점에 대하여 SG17이 주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참고 : COP Global Initiative, <http://www.itu.int/osg/csd/cybersecurity/gca/cop/index.html>



2. 미국 ATIS, 비음성통신 재난 통신 표준화 실시

- 보도날짜 : 2011. 3. 10.
- 기 관 : ATIS (Allianc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Solutions, 미국)
- 사 이 트 : <http://www.atis.org/PRESS/pressreleases2011/031011.html>

ATIS는 4월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한 TTY(text telephone device, 문자를 읽어주는 전화)를 대체할 새로운 문자기반 장치를 위한 비음성 재난통신 표준화(Non-Voice Emergency Communications Initiative)를 시작한다.

ATIS CEO Susan Miller는 "이번 작업은 ATIS가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중요한 접근성 쟁점을 수행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하면서, "최근 청각보조기의 적합성에 관한 작업에 기초하고 있으며 모든 개인이 생명구조 응급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보장하는 노하우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무선통신이 디지털 및 IP기반 네트워크로 진화해가면서 TTY는 응급서비스에 효율적인 액세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휴대폰 제조업체에 외장형 TTY 장치를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별도의 하드웨어, 메모리,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전히 극소수의 청각장애인만이 TTY를 이용한다.

여러 가지 기술적 솔루션이 현재의 TTY를 대신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시장에 출시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용 문자기반 통신에 의지하는 개인을 위해 조속한 그러나 장기 솔루션과 부합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ATIS는 조속한 솔루션을 작업하면서 장기 전략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번 작업에는 AT&T, Nokia, T-Mobile, RIM, Samsung, ZTE, Verizon Wireless, Sprint 등이 참여한다.

1차 회의는 4월 13일 워싱턴 ATIS 사무소에서 개최된다.



3. 도코모, 올해 4천 개국 환경센서네트워크 구축

- 보도날짜 : 2011. 3. 10
- 기 관 : 도코모
- 사 이 트 : <http://www.itmedia.co.jp/promobile/articles/1103/10/news114.html>

일본 NTT 도코모는 1월부터 전국 2,500개소를 구축한 환경센서네트워크 정보제공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4,000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센서 네트워크 구축으로 꽃가루 정보를 PC, 휴대 전화, Android 스마트폰에 전달, 전국의 기상 정보를 제공하며, 2010년 8월부터 제공한 전국의 번개 정보를 포함한 기상정보는 기상 회사, 공장, 보험 회사, 골프장, 은행 등에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 주요내용

- 도코모의 환경센서네트워크에서 수집된 환경정보의 특징
 - 기상업무법을 준수하는 검정을 통과한 계측기에서 데이터를 검색
 - 전국 고밀도 관측 네트워크를 구축
 - 전문 지식을 가진 기업과 제휴하고 정보에 부가 가치를 제공
- 향후 도코모는 관측시설을 휴대폰 기지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건물, 편의점 등에 설치하여 생활 밀착형 정보 수집 검토
 - 부가정보서비스로 "건강 기상서비스"는 기후변화로 인한 열사병, 자외선 정보, 관절염 등의 발생위험 경고 서비스로 활용



4. 미국 ANSI, 표준개발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시장 영향에 관한 워크숍 개최 예정

- 보도날짜 : 2011. 3. 11.
- 기 관 :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미국)
- 사 이 트 : http://www.ansi.org/news_publications/news_story.aspx?menuid=7&articleid=2823

여러 가지 표준 중 기업이나 정부는 각각의 수요에 가장 적합한 표준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지난 수년간 표준과 적합성 분야에서는 경쟁, 융합 및 조정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ANSI는 2011년 5월 12일 이러한 쟁점에 대한 공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 제목 : Standards Wars : Myth or Reality?

■ 일시 : 2011년 5월 12일

■ 장소 : 워싱턴 Grand Hyatt Washington 호텔

■ 주요 내용

○ 표준 전쟁(Standards Wars)에 대한 주요 논쟁

1. 여러 표준이 있으며, 대부분은 중복이고 또 일부는 서로간에 충돌된다. 이를 위한 최선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2. 표준개발기구와 컨소시엄은 시장의 수요에 따라 활동하는데, 하나의 대상을 두고 여러 표준이 있다면 이는 다양한 표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 여러 표준개발 영역에 대하여 경쟁, 컨버전스, 조정에 대한 패넬 중심의 토론으로 개최될 예정

☞ 참조 : http://www.ansi.org/meetings_events/events/2011/standards_wars.aspx?menuid=8



5. 인터넷 주소의 포화로 차세대 인터넷 주소를 위한 표준과 프로토콜을 준비 : World IPv6 Day 행사 개최 (2011. 6. 8)

- 보도날짜 : 2011. 3. 11.
- 기 관 :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미국)
- 사 이 트 : http://www.ansi.org/news_publications/news_story.aspx?menuid=7&articleid=2825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어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43억개의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Internet Protocol Address, IP주소)가 소진될 예정이다.

현재 IP 주소 할당은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과 IANA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이 담당하고 있는데, IANA는 IP 주소를 5개 대륙으로 나누어 할당하고 이를 다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배분하고 있다.

인터넷이 시작된 1981년부터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4 즉 IPv4는 인터넷의 기본이었으며,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에 접속하는 기기에 32비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IPv4는 32비트로 4,294,967,296개를 지원하지만, IPv6는 128비트로 약 34×10^{36} 개를 지원한다.

관련하여, 2011년 6월 8일을 World IPv6 Day로 정하고, 전세계 동시에 IPv6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Google, Facebook, Yahoo 등 24시간 동안 (한국시간 6월 8일 오전 9시부터 6월 9일 오전 9시까지) 시험용으로 IPv6로 콘텐츠를 전송할 예정이다.

☞ 참조 : <http://isoc.org/wp/worldipv6day/>



6. 기술, 표준 그리고 오늘날의 SDO (인터뷰 기사)

- 보도날짜 : 2011. 3. 14.
- 기 관 : ASTM Standardization News
- 사 이 트 : http://www.astm.org/SNEWS/MA_2011/provocative_mall.html

※ 표준과 표준 제정기구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Andrew Updegrove(Gesmer Updegrove LLP 법률사무소 공동설립자)의 인터뷰 기사이며, 일부 내용을 요약하였다.

- 요즘의 기술은 복잡해지고 서로 다른 영역이 교차하고 있다. 전통적인 표준 제정 절차가 이에 따라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며, 표준은 그 속에서 어떠한 역할과 중요성을 갖는가

전통적으로 표준은 산업에 기반한 표준 제정 기구들이 개발해왔으며, 특히 미국은 민간 부문으로부터 상향식 접근을 하고 있다. 최근까지 이러한 시스템으로 잘 대응해왔다. 그러나, 인터넷의 도래로 취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스마트그리드, 전자의료정보(EHR) 등과 같은 현대의 도전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하나의 표준이 나오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SSO의 결과물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가이드에 따라 협력을 통해 병렬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몇 백개의 SSO가 이러한 활동에 착수할 이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이러한 대규모의 영역을 넘나드는 표준 관련(standard-dependent)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

- 최근 표준개발시 정부의 참여에 대해 글을 쓰셨는데, 그러한 협력의 필요성이 왜 조정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정부와 SDO가 좀 더 생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민간부문은 정부의 참여를 간섭이 아닌 지원으로 생각해야 하며, 정부는 민간부문에서는 합의하기 어려운 표준들을 촉진시키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자의료정보과 스마트그리드이다. 오바마 정부는 인센티브와 리더십, 활성화를 통해 수백개의 산업계 참여자와 SSO를 끌어모았다. ANSI는 전 영역의 참여자들이 토론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고 있지만 연방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ANSI는 미국의 기관으로 인식되어 있어 글로벌 컨소시엄이나 활동을 끌어들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의회는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대규모의 표준 관련(standard-dependent) 사업의 시작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NIST와 ANSI를 밀접하게 참여시켜야 한다. (이하 생략)



7. 가트너, 지진 발생시 IT 대응 지침 발표

- 보도날짜 : 2011. 3. 18
- 기 관 : 가트너
- 사 이 트 : <http://www.computerworld.jp/topics/bcm/191043.html>

가트너 재팬은 대지진이나 계획 정전시 기업의 IT 시스템 부문이 대응해야 할 행동 지침서를 공개하였다.

■ 주요내용

- 일본 대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해시 IT부서는 데이터센터측과 사용자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대응 지침 필요성 제기
- 이 보고서의 권장 사항 4가지
 - 데이터센터에 자가 발전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연료 소비를 시뮬레이션하면서, 자가 발전 장치 가동 계획 정전에 대응
 - 데이터 센터에 자가 발전 장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각 시스템을 순서대로 종료하여 계획 정전에 대응
 - 오피스 빌딩에 설치되어 있는 사용자 측의 기기(데스크톱 PC, 서버, 통신 장비 등)은 계획 정전시 올바르게 종료
 - 대중 교통의 운행 불안정으로, 자사에 적합한 재택근무 정책을 수립하고 임시 지원 체제를 구축하되, 개인 소유 PC의 이용에 의한 정보 유출 위험에 대응

※ 보고서 : <http://www.gartner.co.jp/info/bcp/reports/INF-11-21.pdf>



8. IEC,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분야의 표준 투표 기간 단축

- 보도날짜 : 2011. 3. 18.
- 기 관 : IEC (International Eelctrotechnical Commission, Geneva, Switzerland)
- 사 이 트 : <http://www.iec.ch/newslog/2011/nr0711.htm>

IEC(International Eelctrotechnical Commission)는 지난 18일 최종 표준의 발간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의견수렴 중인 표준 즉 CDV(Committee Draft for Vote)의 투표기간을 거의 반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하였다.

CDV는 국제표준안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CDV 투표는 5개월간 이루어지며, 이 기간동안 표준안은 의견수렴 단계에서 접수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다.

그동안 전자적 문서 작성 및 배포로 전체적인 표준개발기간이 매우 단축되었으나, CDV는 일부 국가들이 표준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산업계 및 이해관계인들과 충분히 협의하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전혀 기간이 단축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IT기술의 보급으로 IEC는 이러한 협의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SMB(Standardization Management Board)는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분야로 다량의 문서를 개발하는 3개 TC의 파일럿 프로젝트에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래의 3개 TC는 CDV 의견수렴 및 투표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 IEC TC40 : Capacitors and resistors for electronic equipment
- IEC TC86 : Fibre optics. 산하 3개 SCs (Subcommittees) 포함
- IEC TC100 : Audio, video and multimedia systems and equipment, 산하 11개 TAs (Technical Areas) 포함

3개 TC의 실시결과에 따라, SMB는 1년 뒤 글로벌한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데에 시간 단축으로 인한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든 TCs로 확대할 예정이다.

☞ SMB (Standardization Management Board) : IEC 내 의사결정기관이며 그 결과는 CB(Council Board)에 보고함



9. 일본 총무성, 정보통신분야 표준화정책 검토위원회 회의 개최

- 보도날짜 : 2011. 3. 25.
- 기 관 : 일본 총무성
- 사 이 트 : http://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policyreports/joho_tsusin/bunya/42399.html

지난 2월 10일, 일본 총무성은 정보통신심의회에 「정보통신분야 표준화 정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심의회는 산하에 「정보통신분야 표준화정책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관련내용 : 2월 ICT 표준화 동향정보 8면.

■ 구성

- 의장 (徳田英幸, 慶應義塾大学 정책·미디어연구과위원장) 외 산·학·연 30인

■ 향후 검토사항

1) 중장기 전략

- 다음을 포함한 중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검토 주제에 대하여 국내외 연구 개발·표준화 상황, 표준화에 관한 당면 목표 등을 검토
 - ① 신세대 네트워크, Future Network, ② Photonic Network, ③ 차세대 Wireless Network, ④ Network Robot, ⑤ Sensor Network, Internet of Things

2) 표준화 활동 대응

- 중점분야와 아래의 분야에 대하여 표준화 활동 상황, 추진 현황 등 검토. 신규 대응이 필요한 분야 발굴
 - ① 홈네트워크, ② 3DTV, ③ 차세대 브라우저, ④ 전자서명, ⑤ 클라우드

■ 작업반 구성

- 1) 중장기 전략 WG : 중장기 연구개발전략, 제외국 연구개발 동향 및 정책지원 등 조사
- 2) 표준화활동 대응 WG : 공식표준 및 포럼 표준 활동에 대한 지원 관련 조사



10. 홍콩 정부, 클라우드 인프라 도입 추진

- 보도날짜 : 2011. 3. 25
- 기 관 : 홍콩
- 사 이 트 : <http://www.computerworld.jp/topics/bcm/191043.html>

홍콩정부는 핵심 IT인프라 및 IT서비스를 향후 5년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IT기능과 IT서비스의 민첩성 향상, 업무 효율성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비용과 탄소발자국, 환경부하의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 주요내용

- 홍콩은 1998년부터 첨단 ICT개혁을 추진하는 “디지털 21 전략”을 전개하고 있음
- 2011년도 ICT 개혁을 위한 정부 지출액은 22,300만 달러로 전년대비 45%증가
 - 정부의 ICT 투자 강화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홍콩 무역/경제 허브 비전을 바탕으로 하이엔드 데이터 센터의 유치를 추진



11. 중국, IOT(Internet of Things) 표준 개발 경주에 동참

- 보도날짜 : 2011. 3. 30.
- 기 관 : Consortiuminfo (GlobalSources.com 인용)
- 사 이 트 : <http://www.globalsources.com/gsol/I/Contract-manufacturing/a/9000000114880.htm>

■ 배경

- IOT는 다양한 장치와 어플리케이션이 연결되어야 하므로 단일화된 표준이 필요하며, 인터페이스와 칩이 표준화되어야 함.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은 자체 표준 개발에 노력해왔으며 글로벌 표준의 기초가 될 수 있음
- 여전히 초기 단계인 IOT 산업은 201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글로벌 표준이 정착되지 않아 조만간 전 세계적인 도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자국 표준의 완성이 빠를수록 글로벌 사용을 위한 지침이 되기가 쉽고, 중국 제조업자들에게는 기술 장벽을 낮추고 선진국의 기관에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음

■ 중국의 활동

- 중국의 제조업자들은 IOT(Internet of Things) 표준 개발에 집중해왔음. 일부 중국의 대형 수출 제조사는 2005년 또는 그 이전부터 홈어플리케이션, 스마트미터, 전자 태그 등 IOT 분야의 제품들을 개발. 이러한 기업들은 IOT 개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Intelligent Grouping and Resource Sharing 표준'을 위해 작업해왔음
- Haier은 이미 7개의 기업과 9개 국가의 IOT 표준에 대해 승인을 받았음. 또한, 2개의 국제 표준에 제안을 하였고, 이 중 홈네트워크 영역에서 중국의 첫 번째 국제 표준이 될 수 있음. 또한, IOT 홈 어플리케이션에 1,000 개 이상의 특허를 신청해둔 상태임



토막 뉴스

- **ANSI, 전기자동차의 안전과 보급을 위한 표준화 로드맵 개발 촉진** (ANSI, 2011. 3. 9)
 - ANSI는 미국내 전기자동차의 안전과 보급을 위한 표준화 로드맵을 개발하기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핵심 관계자들과 합의. 이를 위해 EVSP(Electric Vehicles Standards Panel)을 구성하기로 함
- **TIA, 미국 하원의 "2011년 미국 연구 및 경쟁법" 환영 성명 발표** (TIA, 2011. 3. 9)
 - 이 법안은 R&D 세액 공제를 영구화하려는 것으로, 본래 1981년 한시적으로 제정되었다가 14번이나 연장되었었으나 이번에 영구화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음
- **IDC, 세계 스마트미터 시장 전망 발표** (MyCom, 2011. 3. 10)
 - 2010년~2015년까지 연평균 13.0%로 성장, 현재는 미국과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시장의 견인차, 향후 5년~10년간 유럽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 갈 전망
- **'Car Connectivity Consortium' 발족** (Nokia, 2011. 3. 16)
 - 스마트폰을 이용한 IVI(차량용인포테인먼트)시스템 사용 솔루션 개발을 목적
 - 11개 창립 회원 : Daimler, General Motors, Honda, Hyundai Motor Company, Toyota, Volkswagen과 시스템 지원을 위한 Alpine, Panasonic, 가전기업인 LG전자, Nokia, Samsung이 참여
 - * 해당 컨소시엄 웹사이트 : <http://www.terminalmode.org/en/agenda/consortium/>
- **ITU, 지역 워크숍 "향후 10년을 위한 IMT(IMT for the Next Decade)" 개최** (ITU, 2011. 3. 21)
 - 3월 11일 방콕에서 개최, 28개국 170여명 참석
 - IMT-Advanced 시장, 서비스, 기술을 주제로 함
 - 아태지역은 세계인구의 62%, 세계 모바일가입자의 45.8%를 차지하는 있으며, 향후 모바일 브로드밴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파수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
- **TTC, 제47회 총회 개최 (2011-03-24) 보고** (TTC, 2011. 3. 24)
 - 11년도 사업계획, 예산결산 의결
 - TTC 산업간 이노베이션 본부 설치 보고



해외 ICT 표준화 동향 정보 목록 (3월 1일 ~ 31일)

※음영표시 : 본문 수록

보도날짜	최 신 소 식	출처
2011-03-02	Project Gutenberg, 4만권의 eBook을 3월1일부터 무료로 배포	Project Gutenberg*
2011-03-03	ITU, 전원공급 감시와 관련된 표준 개발	ITU
2011-03-04	ITU, 온라인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	ITU
2011-03-07	ITU, 최저개발국(Least Developed Countries)을 위한 제4차 UN 컨퍼런스 (5/9~13) 준비 회의 개최(3/8~9)	ITU
2011-03-07	ANSI, 표준에 관한 NSTC 하부위원회에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연방정부 참여에 관한 문서 제출	ANSI
2011-03-08	EU 집행위원회, 2050년까지 경쟁력있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 채택	EU
2011-03-09	일본, '클라우드 네트워크 심포지엄 2011' 개최 - 일본의 클라우드 전략은 고신뢰, 에너지절약의 인터클라우드	Itmedia
2011-03-09	ANSI, 전기자동차의 안전과 보급을 위한 표준화 로드맵 개발 촉진	ANSI
2011-03-09	TIA, 미국 하원의 "2011년 미국 연구 및 경쟁법" 환영 성명 발표	TIA
2011-03-09	Adobe, 잡지스타일의 웹 편집을 위한 기술을 W3C에 제안	Cnet News*
2011-03-10	IDC, 세계 스마트미터 시장 전망 발표	MyCom
2011-03-10	일본 총무성, 지상파 디지털방송 보급율 95%	일본
2011-03-10	ATIS, 비음성 재난통신 표준화 실시	ATIS
2011-03-10	도코모, 환경센서네트워크-2011년 4천개국으로 확대	도코모
2011-03-10	ATIS, IPTV 콘텐츠온디맨드(CoD) 서비스 구현을 위한 표준 등 2개의 신규 표준 발표	IPTV News*
2011-03-11	ANSI, 표준개발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시장 영향에 관한 워크숍 개최 예정 (5월 12일)	ANSI
2011-03-11	인터넷 주소의 포화로 차세대 인터넷 주소를 위한 표준과 프로토콜을 준비 : World IPv6 Day 행사 개최 (6월 8일)	ANSI
2011-03-12	W3C, 스마트폰 등에 적합화된 XML 규격인 'Efficient XML Interchange' 표준을 발표	eWEEK*
2011-03-14	기술, 표준 그리고 오늘날의 SDO들 (인터뷰 기사)	ASTM Standardization News*



2011-03-16	'Car Connectivity Consortium' 발족	Nokia*
2011-03-16	미 보안전문가, 민간부문은 미국의 사이버스페이스 보호에 적합하지 않음을 경고	nextgov*
2011-03-17	NIST, Cloud Computing Forum 및 워크숍 III 개최 예정 (4월 7일~8일) - 정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로드맵, 기타 보안 및 오픈 표준 활동에 대한 현황 발표 예정	GCN*
2011-03-18	미국 정부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2010년에 40% 증가	nextgov*
2011-03-18	가트너, 지진 발생시 IT 대응 지침 발표	Gartner
2011-03-18	IEC, 표준 제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표준안(CDV) 투표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 * CDV : Committee Draft for Vote	IEC
2011-03-21	ITU, 지역 워크숍 "향후 10년을 위한 IMT(IMT for the Next Decade)" 개최 (3월 11일)	ITU
2011-03-22	제80회 TTC 표준화회의 개최 (3월 18일) 보고	TTC
2011-03-23	Wi-Fi Alliance, 와이파이 hot spot에 쉽게 접속하기 위한 인증 프로그램 개발 중	Cnet News*
2011-03-24	TTC, 제47회 총회 개최 (3월 24일) 보고	TTC
2011-03-25	EU 집행위, 공개입찰없이 내부 IT 시스템을 윈도우7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함 - 공공조달시 lock-in을 피하자는 자체 지침과는 반하는 결정이라는 비난이 있음	CIO*
2011-03-25	일본 총무성, 정보통신분야 표준화정책 검토위원회 회의 개최	일, 총무성
2011-03-25	EU, 공통의 특허 시스템 필요성에 합의	EU
2011-03-25	홍콩 정부, 클라우드 인프라 도입 추진	Computerworld.jp
2011-03-30	중국, IOT(Internet of Things) 표준 개발 경주에 동참	GlobalSources.com *

※출처에 * 표시된 기사는 "Consortiuminfo.org"에서도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